



이진규

지금부터 8000만~7000만 년 전 부산 남구는 지금처럼 바다와 접한 곳이 아니라 커다란 호수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땅이었다. 먼 과거 어느 날 따사로운 햇볕이 내리쬘는 남구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20~30km 떨어진 곳에 있던 거대한 화산이 지하 깊은 곳의 용암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폭발의 결과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날려

와 두껍게 쌓였다. 격렬한 폭발 후에 화산은 화를 가라앉히고 숨고 트기에 들어갔다. 당시 2000만 년 정도에 걸친 시기에 남구 일대는 격렬한 화산 폭발의 영향을 받다가 폭발이 멈추면서 상대적으로 평온해지는 시기가 이어졌다.

이때의 지질학적 사건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가능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지만, 또 그렇다고 전혀 멀기만 한 일도 아닌 것이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가 당시의 격렬했던 화산활동이 일어났던 땅을 매일 밟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화산활동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곳이 빼어난 경관으로 이름난 오륙도와 이기대다.

오륙도와 이기대는 한반도 남동부의 중생대 백악기 말 화산활동으로 연구하는 데 중요한 곳으로, 격렬

했던 화산활동과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오랜 침식작용의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다. 백악기는 쥐라기에서 이어지는 중생대의 마지막 시기로 흔히 공룡이 뛰어놀았다는 그때다. 하지만 남구 이기대 주변은 계속되는 화산활동으로 공룡이 살 수 없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다.

화산활동이 절경 탄생시켜

여러분, 부산을 대표하는 갈매깃코스인 오륙도와 이기대는 머나먼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이다. 오륙도에서 시작하는 시간여행은 이기대 갈매깃 코스를 따라 동생달까지 이어진다. 먼저 오륙도를 살펴보자.

오륙도는 지질학적 시간으로 볼

때 최근까지도 섬이 아닌 육지의 일부였다. 대략 8000만 년 전 오륙도는 화산 분화의 결과 탄생한 이기대 지역의 한 부분이었다. 2400만~1500만 년 전 우리나라와 연결돼 있던 일본이 분리되면서 동해가 만들어졌다. 이후로도 계속 이기대와 연결돼 있던 오륙도는 12만 년 전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바닷물에 잠겨 서서히 파도에 깎여나가며 섬이 됐다.

이제 오륙도 해맞이공원을 떠나 이기대 길을 걸어보자. 벼랑 위 숲길을 한동안 가면 나타나는 게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선 능바위다. 절묘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능바위는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이 오랜 기간 파도에 깎여나가 만들어진 자연의 조각품이다. 이후로도 이기대 코스를 따라 시간과 파도가

빛은 작품을 잇달아 만나볼 수 있다. 능바위에서 동생달 방향으로 10분가량 가면 시아가 트이면서 평평한 바위 해안이 펼쳐진다. 이곳은 파식대지로, 급자 뜻 그대로 오랜 시간 바위를 '파도가 깎아 먹어' 만들어진 것이다.

해안길 걸으며 시간여행

어울마당을 지나면 곧 나오는 바위에는 둥그렇게 웅덩이처럼 파인 곳이 여럿 있다. 한때 공룡 발자국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한 이 웅덩이들 또한 오랜 기간 바위 틈새에 들어간 돌멩이가 파도에 의해 움직이며 만들어진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의 구리광산에 이어 파도에 의해 절벽이 깎여 만들어진 동굴을 지나면 광안대교가 눈앞으로 다가온다.

지정된 곳에 가서 버리기 귀찮아 아파트 고층에서 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 천적의 자가용이 이런 투척행위로 차량 유리가 깨지기도 했습니다. 나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물건에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베란다에서 물건을 던지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향화(문현3동)

금연 위한 획기적 대책을

올해 1월부터 금연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제가 사는 빌라촌 주변은 인근 주민과

는 감만2동 강민수씨의 권이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 고지서는 지방세기법상 시행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서식의 규약이 따르나, 독자님의 의견을 시와 각 구·군의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 반정훈>

“괜찮아, 전에도 그랬는걸...”

■ 기자수첩

이 틈을 파고드는 ‘우연이라는 악마’

지난해 이맘때 해운대구 좌동 사거리에서 목격한 교통사고 이야기다.

횡단보도 없이 지하보도만 있는 통령량 많은 내리막길 사거리였다. 기자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택시 한 대가 기자 앞에 있었다. 이 때 50대 중년 여성 한명이 슬쩍 무단횡단을 시도했다. 그가 택시 앞을 막 지나려는 순간 ‘하필이면’ 황색신호등이 켜졌다. 멍청한 그녀, 황급히 택시 앞을 빠져나 가려는데 순간 ‘통’ 소리를 내며 그가 3~4m 허공으로 솟구쳤다. 옆 직진차선에서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려오던 아반떼 승용차가 그녀를 받아버린 것. 황색불이 꺼지기 전에 교차로를 통과하려 가속페달을 밟았던 모양이다. 그녀는 아스팔트 바닥에 고꾸라졌고 사색이 된 가해차량 운전자는 허둥지둥했다. 평범한 얼굴, 평범한 옷차림의 30대 중반 여성이었다. 황급히 앰블런스가 피해자를 싣고 가 버려 생사는 알 길이 없었다. 평범한 일상이 지옥으로 바뀐 건 그녀가 밟은 그 틈을 파고드는 ‘우연이라는 악마’가 있었다. 이 셋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순간 뇌관을 누른 폭약처럼 터져버린 것이다. 셋 중 어느 한나라도 결여됐거나 느슨했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파괴력은 현저히 낮았을지 모른다.

이날 사고는 몇 개의 실수와 ‘우연’이 얹혀있었다. 귀찮은 지하보도를 두고쉬은 도로를 무단횡단 한 피해자, 감속해야 할 내리막길을 질주한 가해자. 여기에 ‘우연(황색신호등)이라는 악마’가 있었다. 이 셋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만나는 순간 뇌관을 누른 폭약처럼 터져버린 것이다. 셋 중 어느 한나라도 결여됐거나 느슨했더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파괴력은 현저히 낮았을지 모른다.

대형 참사가 생기면 끝날 하인리히 법칙을 인용한다. 보험회사 조사관인 허버트 월리엄 하인리히가 찾아낸 ‘사고 방정식’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해 중상자 한 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0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것이다. 하인리히가 발견한 사고의 법칙은 사고는 운이 없거나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누적된 관행과 안일함의 표출이라는 것이다. 즉 안전개는 일어난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지난 4월 16일 아침 우리는 아내 지옥을 목도했다. 그녀의 사고가 없었더라면, 아이들은 국내에서 가장 예쁜 섬을 다녀와 지금쯤 기말고사 준비로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을 것이다.

그날 차가운 바닷물에 수장된 건 비단 아이들만은 아니었다. 온 국민이 TV로 배가 가라앉는 광경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충격과 무력감에 빠졌고 이어 하나둘 벗겨지는 진실에 그로테스크한 공포감에 허우적대야 했다.

세월호가 사고였을까. 사고로 ‘먹고 사는’ 보험회사 사장 예쁜 섬을 다녀와 지금쯤 기말고사 준비로 평범한 하루를 살고 있을 것이다.

김성환 기자



디딤씨앗통장 후원 안내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같은 금액을 적립해 주는 아동지킴이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 **지원대상** : 시설임소아동, 소년소녀가장아동, 가정위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
- **지원기간** : 0세부터 만18세 미만까지
- **지원방식** : 아동(보호자 또는 후원자)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 국가가 같은 액수로 지원(국가지원금 3만원 한도 내)

■ 신청방법

- 일반후원 :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www.adongcda.or.kr), ARS 060-706-1004, 한국사회복지협의회(☎02-790-0786~7), 부산광역시 아동복지협회 디딤씨앗사업단 ☎441-9710, 441-7006
- 남구 아동 지정후원 : 부산광역시 아동복지협회 디딤씨앗사업단(☎441-9710), 남구청 주민복지과(☎607-4355)



본 질

“뒷간 기둥이 물방앗간 기둥 더럽다 한다”는 속담이 있다. 누가 보아도 더럽기는 비슷하고 차이가 크지 않은데 우리는 본질을 따지지 않고 그 현상이나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본질을 벗어난 진정이란 있을 수 없다. 정처도, 조직사회도 마찬가지다.

위나라 혜왕이 평자를 초청하여 국정 조연을 구했다. “우리나라는 제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고 거기다 강대국인 진나라의 압박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라 민심이 흉흉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음을 다해 수습하고 있지만 생각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하네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사람들을 하동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하동에 흉년이 들면 하네로 이주를 시키는 등 신경을 쓰고 있지만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자가 대답했다. “대왕께서는 전쟁을 좋아하시니 전쟁에 부유하여 말씀드리겠습니까. 전쟁터에서 개전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

습니다. 적과 아군이 뒤엉켜 싸우고 있는데 그 때 두 겹장이 병사가 도망을 쳤습니다. 한 사람은 100걸음, 한 사람은 50걸음을 도망쳤는데 50걸음을 도망간 병사가 100걸음 도망간 병사를 보고 비겁하다고 비웃었습니다. 대왕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도망을 쳤으니 서로 나무랄 수 없죠.” “그럼, 지금까지 대왕께서 한신 일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잘 아시겠군요. 하네 사람을 하동으로 이주시키고, 하동 사람을 하네로 이주시키는 일이 이주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신다면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국고를 열었어야죠. 그것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정자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알아야 하며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몇몇한 사람은 남을 힐끗볼 양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남을 힐끗보는 것이다.

산다라 물 따라라

산행을 떠나요



<2014. 6.>

구분	산악회	산행일자(요일)	산행장소	연락처
대연동	대산산악회			010-9979-0702
	대오산악회			010-2559-2086
	청암산악회	11(수)	남해 매봉산 설골산	010-6778-3192
	와천산악회	18(수)	포항 비화산	010-4655-4370
	용산산악회			010-3586-6161
용호동	용호산악회	22(일)	거창 월여산	010-2593-0361
	제일산악회	1(일)	전남 장흥 제암산	011-594-4192
	여명산악회	1(일)	전북 완주 대둔산	010-3554-4392
	화경산악회			010-3575-3448
	용산산악회	8(일)	경남 함양 선비길	011-488-3307
	다산산악회	1(일)	충북 옥천 고리산	010-3870-2660
	금강산악회	1(일)	문경 도강산 쌍용계곡	010-3855-9051
	21C산악회	8(일)	지리산 칠여봉	010-6266-8525
	부산산악회	1(일)	충남 홍성 문수산	011-576-2729
	청산산악회	1(일)	충북 제천 월악산 만수봉	010-8008-2087
용담동	한마루산악회	8(일)	거창 양강산	010-9324-3424
	한울타리산악회	8(일)	경남 산청 백운계곡	010-7650-1994
	문화산악회	22(일)	포항 청학 내연산	016-564-8882
	용마산악회	8(일)	영주 수백산	010-4433-8809
	녹색산악회	22(일)	경북 문경 성주봉	010-3595-7692
감만동	글루벌산악회	15(일)	경북 봉화 죽용봉	010-6287-1192
	죽거문산악회	22(일)	월악산 만수봉	010-2397-1133
우암동	우남산악회	15(일)	서울 북한산	010-7520-6666
	우일산악회	1(일)	전북 완주 대둔산	010-3557-2847
	우암산악회	22(일)	청도 문복산	010-6578-0488
	문현산악회	8(일)	지리산 뱀사골행취년송	010-3178-3065
문현동	원부리산악회	15(일)	영덕 팔각산	010-4564-7769

* 산행일정은 산악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월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자**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신고·납부기한** : 2014. 5. 1~2014. 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30까지)
※ 기한내 미납 또는 미납 납부한 경우 1월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 : 소득세율의 100분의 10
- **신고방법**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또는 전자신고(소득세와 동시 신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시, 종합소득세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 세액 공제

문의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세무과 ☎ 607-4251



<220>



청소년들의 흡연이 잦아 거리에 담배초주가 넘쳐나고 지나다닐 때 마다 간접흡연으로 숨이 막힐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주택가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과 주민들의 금연을 위해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박은숙(대연6동)

■ 나의 생각

112 장난전화는 장난 아닌 범죄

오랜만에 7살짜리 딸을 데리고 외출을 했다. 건널목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파출소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는 포스터를 보고 딸이 물어본다. “아빠 허위신고가 뭐야?” “장난으로 신고를 하거나 거짓말로 신고를 하는 거란다”라고 하니 딸이 “거짓말로 신고를 왜 해?”라고 되물어 온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112전화가 중요한 신고전화라고 배웠다. 우리 딸과 같은 유치원생들도 112전화는 소중한 번호임을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이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한다.

술에 취해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전화를 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반복해서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등 허위나 기만을 내용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난해 접수된 112 장난·허위 신고가 만 건에 달했다고 한다.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해 허위

남부경찰서 112상황실 정종현

■ 독자의 편지

칠순 만학도의 눈물

문현동에 사는 73세 조명선 할머니가 19일 본지로 보내 온 배틀배틀하지만 정갈함이 느껴지는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입니다.

조 할머니는 몇 달 전만해도 한글을 전혀 쓰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 늙어 무슨”하며 주저주저하다 지난해 8월 문현동에 위치한 아학교인 남부중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칠십 평생 처음 가 본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7, 8부터 6개월간 한글을 배웠습니다.

햇살 좋은 지난 4월 어느 날, 할머니는 다시 큰 용기를 냈습니다. 편지에 나온 대로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찾기 위해 새마을금고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출금용지에 이름 석자를 적고 마침내 자신의 통장에서 자신의 돈을 직접 찾았습니다. 그 돈으로 자자 몇 봉지를 사서 곧장 학교로 달려가 또래 반 친구 15명과 나눠 먹다 순간 교실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툰고 신선했던 세월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동시에 ‘나도 할 수 있다’는 희열과 성취감에 북받쳤을 것입니다. 깨달음과 행복은 결코 무지개 너머에 있지 않나 봅니다. 조 할머니와 남부중학교 학생들의 용기 있는 도전에 조응히 박수를 보냅니다.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장 김 성 한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ngj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원고 <비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